

勞動器具의 停滯性 研究

—舊來 朝鮮 農業에 있어서의—

崔 虎 鎭

朝鮮 農業의 特質은 아세아의 이라고 한다。朝鮮의 土地를 暫時 論外로 한다면 地勢나, 氣候나, 그 다음으로는 終霜으로부터 初霜에로의 期間의 長短, 다시 한 걸음 나아가 降水量의 分布狀況等 所謂 一聯의 自然的 諸條件은, 朝鮮 農業에 多様이요, 그리고 顯著한 地帶的 變異와 特色을 齎來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自然的 條件의 特異性으로부터, 季節的 不均衡을 가져오며, 農業 經營을 極度로 集約化하며, 一便 農業 勞動力의 巨大한 遊休 期間을 造成하는 것이라든 것은 過去도 現在도 變함이 없다。이러한 朝鮮 農業의 季節的 不均衡으로부터 오는 集約的 勞動樣式은, 農業 勞動 器具의 性質에도 또한 決定적인 方法으로 影響을 미쳤다。

在來의 朝鮮의 農業 勞動 器具의 根本的 特徵은 大體 어떠한 것인가? 이 問題에 答하기 前에 하먼 朝鮮 農業 生産 過程에 있어서 極히 長期間에 걸치 支配的 役割을 하고 있던 農業 勞動 器具를 列擧하여 보자。오랜 資料로서는 저 洪萬選의 作品인 「山林經濟」에 列擧되어 있는 「作農 諸具」를 우선 調査하여 보면,

「作農 諸具, 杓子, 無櫻水杓子, 鉗, 鏢伊, 葫葉鏢伊, 鐵齒鉋(小時郎), 大小斧子, 大小鎌子, 鋤子, 耒

耜犁具錢、所訖羅、栲栳、櫛木、牛皮機、負支機」(註)

(註) 「山林經濟」卷之十二、家政下。

다음으로 舊韓國 時代의 作品으로 생각되는, 鄭秉夏著 「農政撮要」中의 「論農器」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리말로 記入된 것은 農具를 摘記하면,

「씨씨데, 씨시랑, 낫, 송곳파이, 삽, 가래, 호미, 나무씨데, 파이, 췌매는 호미, 장도리 같은 파이, 도끼
肥料실는 舟車, 갈키, 고미데,禾穀 及 兩麥 말리는 架子稻拔」(註)

(註) 鄭秉夏著 「農政撮要」五十六面。

以上 두 資料는 다 같이 李朝 末期에 가까운, 또는 그로부터 舊韓國末에 가까운 때의 著作에 나타난 種類이지만 最近에 있어서도 何等 變함이 없다. (註)

(註) 印直植 「朝鮮의 農業機構」二二六面。 「新撰韓國事情」二五三면에는 分類的으로 農具를 列擧하고 있다。

以上 數人의 著作에 나타난 農具는, 數에는 多少 差가 있지만, 大體로 보아 同種 同名의 것인 것은 分明하며, 그것에 단지 發音上의 相違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農具를 目録한 사람은 모두,

「其農具는 不完全을 다하며 鋤라든지 鋤라든지 거의 小兒의 玩具에 類屬하다」(註1)

「農具의 種類、製造 나 같이 極히 單純하고」(註2)

(註1) 植松孝昭 「我殖民地으로서의 韓國의 研究」二(「東洋經濟新報」第三七五號、東京。)

(註2) 「朝鮮農業論」一三九面。

「朝鮮敎會史」란 大著한 世上에 發表한 佛國宣敎師 달레 (Ch. Dallet) 의 그의 著、第一卷中에서 「農具는 甚히 單純하며 原始的」(註)이라고 말하고 있다。

(註) "Les instruments aratoires sont aussi simples et aussi primitifs

que possible."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par Ch. Dallet. Tome Premier. Paris. 1874. P. 5.)

4 Angus Hamilton of

"I watched the farmer's family and his neighbours at their work. The implements of these people are rude and few, consisting of a plough, with a movable iron shoe which turns the sods in the reverse direction to our own,...." (Angus Hamilton, Korea. London. 1904. P. 120.)

W. R. Carles 1887年 農村地帶の記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As the hills were higher than those seen the previous day, the effects of unscentific cultivation were still more disastrous...." (W. R. Carles, Life in Corea. 1888. London. p. 216.)

右와 같이 『不完全』과 『單純』한 것으로서 一括的인 農具를 特徵지니고 있는 것이 看取된 것이다. 참으로 朝鮮 農業 勞動 器具의 特徵은 不完全하며 單純하다. 이런 곳에 이 땅의 農具의 特徵은 있다. Bishop(ishop)은 朝鮮의 農具에 對하여 比較的 整理된 叙述을 하고 있다.

Agricultural implements are rude and few. A wooden ploughshare with a removable iron shoe is used which turns the furrows the reverse way to ours. A wooden spade, also shod with iron, is largely used for heavy work. This, which exists the ridicule of foreigners as a gratuitous waste of men power, is furnished with several ropes attached to the blade, each of which is jerked by a man which another man guides the blade into the ground by its long handle. The other implements are the same sort of sharp-pointed sharp hoe which is in use in China, and which in the hands of

the eastern peasant fills the place of shovel, hoe, and spade, a reaping hook, a short knife, a barrows, and a bamboo rake which is largely used in the denudation of the hills. Grain, p 25, and bars are threshed out which falls as often as not in the roadway of a village, while the grinding of flour and the hulling of rice are accomplished by the stone quern, and the stone or wooden mortar, with an iron pestle worked by hadd of foot, the "pang-a" or, as has been previously described, by a "mul" or water "pang-a". Rice is threshed by beating the ears over a board, and all grain is winnowed by being thrown up in the wind"(註)

(註)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1887. New York. P. 161-62. 韓國 文藝 會 會誌 卷 10. Rev. Games S. Gale, Korean Sketches. Boston. 1898. P.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New York. 1908. P 91-65 會誌。左記資料を本文に引用し資料を 一層 補充す べし。

「韓國農業論」二二七面。「同書」一三〇—一三一面。

「韓國總覽」四八六—四八七面。

Rev. Daniel L. Gifford, Everyday Life in Korea. Chicago. 1898. P. 62-63 會誌。

Basil Hall, Account of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London. 1818. P. 45 會誌。

「韓國農業論」二二三面。

「韓國總覽」四八七面。「同書」六一二面。

Basil Hall, ibid., P. 45-46 會誌。

다시 韓國 末期의 農業 耕作法을 이 땅에 있어서 實地로 볼이 보았다 고 하신 荒川 五郎의 著

日本人의 記錄에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註)

(註) 荒川五郎「最近朝鮮事情」明治三十九年、二〇四—五面、東京。

「韓國農業論」一三二面。

勿論 이 땅의 農民의 器具는、以上과 같은 描寫에 依하여、完全히 記述되어 있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으나、그러나 우리들은 李朝 末期에 있어서의 그 以前으로부터의 集成的 意味에 있어서도 農業 勞動 器具의 技術的 水準을 어느 程度 窺 볼 수 있다。

疑問의 餘地도 없이 嚴然히 存在하는 技術的 原始은 大體 어디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보아 가장 收益이 많은 것이며、勞動力이 比較的 發展한 農業 部門이、그 農業 勞動 器具에 있어서 이와 같이 未發達 그대도、그리고 停滯 그대도 繼續하여 왔다는 것은 何故나、이 問題는 確實히 矛盾된 現象이라고 하겠으나、問題의 解決은 이러한 現象의 背後에 隱蔽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땅의 農業 勞動力의 諸性質을 最高度로 展開시키는 農業 生産 過程은、實로 社會的 條件에 依한、生産 諸力의 物質的 部分의 發展을、躊躇할 것 없이 犧牲시키고、이것을 行하였으며、또 行하고 있는 것이다。이 땅의 아세아의 自然條件에 依한 季節의 不均衡은 農業 經營을 集約化하고、그리고、比較的 複雜한 農具를 一便에서는 不必要로 하는 것이 있다。우리들은 以上の 諸資料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땅에 있어서는、其他의 諸國의 農業 生産 過程에 있어서 演出한 機械 代身에、人間의 手勞動이 支配的 狀態에 있고、比較的 廣大한 땅에 있어서 使用될 수 있는 器具의 利用까지도 排除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러한 아세아의 自然條件의 特殊性으로부터 農民의 耕地 單位의 零細化를 容易하게 하고、따라서 이 勞動의 集約化 即 農業 經營의 集約化를 結果하였던 것이다。李朝 末期에 이르러

서의 諸外國人의 손으로된 調査는, 모두가 모두 이 땅의 農民이 極히 倭小 規模의 經營을 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무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모든 器械는 小經營의 農業 生産에 있어서 極히 不合理한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세아의 自然條件에만 모든 原因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세아의 自然條件에 依한 零細化 乃至 集約化의 諸條件 위에, 이러한 條件을 一層 強力하게 促進시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틀림 없이, 社會的 條件이다. 社會的 條件이 強力하게 作用하였던 것이다. 어떤 때에는 이 社會的 條件이 主가 되고, 自然的 條件이 從이 되는 役割을 演出하였다고 보이는 面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萬若, 우리들의 論究가 이런 때, 自然的 條件을 強調하는 나머지, 그것에다가 모든 要因을 求하는 것 같이 觀察한다면, 우리들의 論究는 一步도 前進 못한 것이며, 그것에 그칠 것이다. 森谷克己氏의 말을 빌어 본다면, 『半島의 自然은 너무나 嚴酷하며, 또 收斂이 苛重에 지나갔던 까닭이다. 朝鮮이 産業에 있어서 停滯에 빠지고 있었던 것도 오로지 이것 때문이었다』(註)

(註) 森谷克己「東洋的生活圖」一九七面.

李朝의 土地 所有制度는 우리들이 아는 範圍 內에서는 土地 國有制로부터 始作하였다. 우리들은 李朝 建國當初의 모든 土地에 關한 諸改革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을 볼 것이다. 李成桂가 高麗 末의 紊亂된 土地 制度의 改革을 그 모든 建國策의 土台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나, 高麗 末의 土地 制度도 當初로부터 內包한 自己 矛盾의 擴大로 만미안아 드디어 麗朝를 崩壞시키지 않으면 안될 地境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 뒤를 밝히는 李朝도 名目上은 土地 國有制 그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名目으로서의 封建 地主層에로의 土地 分割은, 矛盾을 包藏하고, 李

朝의 初期로부터 中期、中期로부터 末期에 걸쳐 土地 所有 形態는 國初의 尊嚴한 바와는 떨어져
 고 아세아의 土地 關係의 支配는、末期에 가까워짐에 따라 所謂 貴族과 官僚에 依한 土地의 兼
 併과 侵食이 漸次、公公然하게 行하여 지고、土地 占有 形態의 事實的 確立의 背後에는 只今까지
 의 國有 制度가 더욱 虛構化되어 간 過程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그와 아울러 一便에는 또
 必然的으로 더욱 細分化되어 가는 零細的 耕作이 展開되게 되었다。그리하여 스스로 生하는 모든
 現象 農民에 依한 生産의 擴張、農業 耕作上의 技術上의 向上、勞動力 器具와 肥料의 一層 높은
 段階에로의普及 等은 완전히 不可能에 가까게 되고、農業 生産力의 不斷의 萎縮、停滯化와 더불어
 어、土地의 自然的 豐度도 漸次 減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리고, 이러한 零細的 農民의 肉
 體的 勞動力 再生産까지도 危險 狀態에 빠지는 때가 종종 보인 것도 事實이었다。그리하여 이러
 한 經營 規模의 極히 倭小한 規模의 經營은 近代的 機械가 出現한 後도 또한 機械의 利用을排
 除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多言할 必要가 없다。이러한 것은 今日까지의 朝鮮의 社會秩序에內
 存하는 自己 矛盾 中 가장 큰 것의 하나일 것이다。極端한 形態에 있어서 이러한 矛盾은 이미
 먼 時代로부터 나타나고、李朝 末期에 있어서는 特 다음과 같은 形態에 있어서 顯現하였다。即
 相對的으로 볼 때、一定한 큰 勞動 手段인 耕牛、水車、精米機는 貧困한 農民에 있어서는、設使如
 何히 이러한 勞動 手段을 充分히 使用할 수가 있다고 하여도 너무나 貧困하기 때문에 손에
 餘裕를 가질 수가 없었다。

將來부터 犁와 아울러 가장 널리 使用되었던 것은「호미」이었다。

在來의 朝鮮의 農業 生産 過程에 있어서는 牛耕이 支配的 役割을 演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牛耕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必要한 役畜은 農民이 누구나 모두 所有하고 있었던 것

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滿足한 程度로 支配的 役割을 할 수 있었나 없었나?
이러한 耕牛는 이미 新羅 時代로부터 始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三國史記」中の 다음과 같은 記錄에 依하여 推測할 수 있다. 卽

『訥祗麻立干, 二十二年 夏四月……敎民牛車之法』(註)

(註) 朝鮮史學會「三國史記」卷 第三, 新羅 本記 第三, 三一面。

『智證麻立干, 三年……三月, 分命 州郡主勸農, 始用牛耕』(註)

(註) 「三國史記」卷 第四, 新羅 本記 第四, 三七面。

이에 對하여 洪以靈氏는 그의 著「朝鮮科學史」中에 『牛耕이 行하여 지게 되면, 牛曳犁의 使用, 게다가 有底犁、無底犁의 別도 用途에 따라 區別되어, 耕鋤, 作畦의 用도 하였다. 中耕 培土犁, 作畦犁도 使用되었다』(註)고。

(註) 洪以靈「朝鮮科學史」一二五面。東京。

이것은 勿論, 單純한 推論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具體的 事實은 아직 分明하지 않다. 確實히 牛耕이 行하여 졌다고 하는 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如何한 範圍에 걸쳐 行하여 졌다는 알 수 없다. 비로소 犁의 使用이 이 땅에 알려진 것은 確實히 『原始的 耒耜農具로 是技術的 基礎 위에 들 端初를 이룬 것이며, 農業史上 劃期的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註1)는 것이다. 그러나, 萬若 新羅 時代의 牛耕이 其後 發達하고 있었다고 하면, 高麗 時代에 있어서는 廣範圍에 걸쳐 行하여지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森谷氏의 論究에 依하면 『貧者는 많이 耒耜로써 耕作하고 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었다. 卽 일찍이「牛耕」은 알려져 있었는에도 不拘하고 依然 原始的인「耒耜農」이 多分 保有되어 왔던 셈이다』(註2)라고,

(註1) 森谷 克己「東洋의 生活圖」二二八頁。

(註2) 「阿齊」二二三頁。

이러한 段階을 밟아서, 또 李朝에 있어서도 그의 末期에 있어서도 依然牛耕보다도 鋤耕이 오히려 普及 範圍에 있어서 一層 廣大하였다. 이 땅에 있어서는 牛耕이 鋤耕보다도 絶對로 要請되었으나, 그 所有 形態에 있어서도 더욱더욱 擴大化하여 가는 貧窮으로 만이 아아 普遍的 所有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即 牛를 所有할 수 있는 者는 富強한 農民이며, 貧農은——이것이 大多數이지만——牛耕에 代身하여 鋤耕으로서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廣範圍에 걸쳐 이 땅에 存在하였다. 이것은 貧民을 낳게한 原因에 由來하는 것이며, 眞實로 社會的 條件으로부터 發生한 것이다.

以上에 依하여 우리들은 大體로 보아 朝鮮의 農業 勞動器具의 未發達에도 不拘하고, 農民 生産力을 無理하면서도 維持하여 온 偉大한 힘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停滯된 農業 勞動器具의 代役을 무엇에 要請하여 왔나? 무엇에 依하여 補充되어 왔나? 이것에 對答하는바 있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이것은『手勞動』이라고 簡單히 對答할 것이다. 손에 依하여 使用되는 道具 이것이 다. 손에 依한 勞動, 樣式이 모든 農業 生産 過程에 나타났다. 播種에도, 移秧에도, 除草에도, 施肥에도, 灌溉에도, 刈入에도, 脱穀에도, 調整에도 全然 單純한 道具만이 보인다. 「韓國總覽」에, 「다만 勞力으로써 可及의 土地의 生産力을 吸收하려고 努力하고 있을뿐」(註1)이라든지, 「그 農業은 空然히 多大한 時間과 勞力을 虛費할 뿐이고 成果 極히 僅少하다」(註2)고 말한 것은 正確하다고 말할 수 있다.

(註1) 「韓國總覽」三九四頁。

(註2) 植松孝照「秋殖民地으로서의 韓國의 研究」(二)(「東洋經濟新報」第三十五號、九面、東京。)

이러한 事實에 對하여는 支配 階層이라 한지라도 無視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官僚의 眼中에 도 바로게 反映되고 있었다。우리들은 特히 近世에 있어서 이 땅의 農學者로서 일컫는 朴趾源의 「課農小抄」中에 다음과 같은 論述을 發見한다。

『我國之農器 與中國之農器 共同異得失 未知果何如也 其始 果出於東國之神農歟 抑亦學之於中土歟 數千年來 猶能辟土 而食粟則始斯亦云可矣 然中世以來 疆域有限 利用不通則安知今日中國之所用 其便利更有培勝於此者乎 故欲利其器械 則莫如學中國 學中國者 學古聖人之法也 將謂今日之中國非古之中國 而恥學焉 則是並與古聖人之法 而賤棄之也……』(註一)

即 朴趾源은 當時와 같이 封鎖的 國家 構成中에 있어서 唯一한 大國으로서 仰慕하는 中國에 使節로서 赴任하여, 그 機會에 廣汎하게 見聞한 모든 知識을 基礎로 하여, 그의 論은 세우고 先進國 中國의 農業 技術을 배울 것을 極力 強調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이는 支配階層의 任務가 아니라 다。그리고, 太古 그대로의 技術을 墨守하고 있는 이땅에 器械에 關한 知識을 取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主張하여, 그는 「燕巖集」의 節마다 力點을 두고 論述하고 있다。그리고, 이 間의 事情은 左에 引用된 「農器按說」中에 分明히 보인다。그는 또 「鋤治按說」中에 播種行程에 있어서의 勞動力의 浪費를 指摘하며 幼稚한 農耕 過程을 甚酷하게 非難하고, 그의 改良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모든 農具의 未發達에 그 原因을 求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지만, 그나마 이것은 決코 그로하여금 그렇게 한 全責任을 農民에 돌릴 것은 斷然코 아니라는 것이 明白한 것이다。이것은 責任의 轉嫁 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다。

『今之種法 而欲用中國之鋤者 是暴其苗者也 中國之田 一畝三畝 爲鋤長柄立而刮其壘 使上左右分 而墾於苗艸無所著其根 又耨之脚間 與畎之間合 非但車同軌也 鋤亦同軌也 故功倍而人不勞 我國之種者 廣

畝、漫、種、生、無、行、列、不、得、不、爲、小、鋤、短、柄、終、日、坐、而、遷、延、根、根、而、培、之、勞、倍、而、功、半、雖、有、長、柄、兩、脚、之、制、無、所、用、之、日、何、爲、不、變、其、種、法、也、日、歲、歲、入、中、國、者、役、夫、車、徒、皆、西、略、之、農、家、子、也、遼、瀋、之、間、日、閱、萬、畝、想、必、有、其、法、而、便、之、者、然、其、心、以、爲、我、禮、義、之、邦、彼、則、胡、也、豈、可、以、禮、義、之、邦、學、胡、之、法、乎、其、象、澤、者、又、生、不、知、農、既、不、知、我、國、耕、之、法、又、安、知、彼、法、之、與、我、不、同、也、況、其、志、不、出、於、貨、利、者、乎、其、士、大、夫、又、皆、鄙、薄、功、利、不、肯、留、心、於、經、濟、而、其、不、知、農、與、不、肯、學、胡、之、義、又、未、始、不、同、於、二、人、究、其、弊、則、皆、驕、與、吝、爲、之、祟、也、臣、故、曰、農、政、全、書、固、非、一、人、辨、其、私、智、而、是、後、如、有、新、方、妙、法、雖、或、眞、出、於、胡、狄、之、中、士、大、夫、去、個、矜、字、源、志、願、學、焉、然、後、農、之、道、始、傳、而、公、行、國、中、矣、(註、)

(註、) 朴趾源「燕巖集」卷之四、農說、農器、按說。

우리는 生産 過程을 詳細하게 追及하여 가지 않더라도, 以上 말한 모든 要因을 土產로 하여 이 生産 過程의 根本 法則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自然的 條件, 그것보다 一層 強한 社會的 條件에 基因하는 이 땅의 農業 耕作은, 勞動 手段을 完全히 犧牲으로 하여 勞動力을 展開시킨 것이다.

우리는 以前에 必要한 限에 있어서, 이 땅의 從來의 土地 所有의 問題에 對하여 言及하고, 이 面으로부터 問題를 提起한 일이 있으나, 이 땅의 農耕은 그 生産性을 極限에까지 自然的 條件에 適合시키면서 展開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同時에 그 生産性의 發展의 限을 展開시키지 않고는 마치 않는다는 것을看過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實際 重大한 問題이다. 都大體 小經營이란 것은 近代的 生産 諸形態가 出現할 때까지는 이 땅의 農業의 本質上, 그것의 遂行에 當하여 가장 適當한 合理的 經營의 方法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李朝 末期에 있어서의 農村의 土地 所有 形態가 어떠한 것이었다는 것은 이미 大略 보았다. 零細農的 土地 占有가 卽이었던 것이

다. 두 말할 것 없이 우리들의 理論이 指示하는 바에 依하면, 零細農的 土地 占有는 그의 性質上, 勞動의 社會的 生産 諸力의 發展이나, 勞動의 社會的 諸形態이나, 科學의 累進的 適用을 排除한다. 그리고, 高利貸付 資本과 苛烈을 極한 租稅地代와 貢物과 賦役은 到處에서 農業生産力을 衰頹시키지 않고는 전될 수 없었다.

如何든지, 이 땅의 農業的 小經營 形態는 物的 勞動 手段 및 勞動 諸形態의 發展을 全然 停頓시켰다. 그리고, 個人的 勞動力과 家族的 勞動組織만을 展開시켰다. 그리하여 이 땅의 農民層이 이것이 大部分이지만의 租稅地代 및 高利에 依한 貧窮化를 이 땅의 歷史的 事實으로 顯現시켰다.

이와 같이 이 땅의 農村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極히 狹隘한 土地 所有의 限界의 內部에 있어서는 過小農的 農業에 適應한 有効한 勞動 手段도, 大端한 犧牲을 支拂하여서만, 農民層의 大部分은 自己 手中에 넣을 수가 있었다.

이미 姜希孟은 그 體驗에 基因하여 자들은 農業經濟錄인 「衿陽雜錄」中에, 소(牛)를 所有 못한 者는 九人의 人間 勞動力으로서, 소가 一日 間에 끝마치는 工程을 代身 끝마치는 것이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 即 牛耕의 一日 分을 九人의 人間 勞動力이 能히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人間이 바야흐로 挽獸의 役割을 擔當하였던 것이다. 이 땅의 「無牛者」는 人間의 勞動力으로서 勞動 用具의 代役을 하였던 것이다.

「耕田 不甚早 三月望時 始翻土 無牛者 備九人挽犁 則可代一牛力 日耕可種三十斗 餘到庄 治明前薄田 二月望前 土脉初開 畜水耕種 里人 皆曰 播種太早 當不立苗 餘以是爲懼 呼老農 問之 農曰 無傷也 凡耕種之法 不厭太早 太早則耐風旱 秋而實曰 何以其然耶 農曰 大抵如種 以受土氣之先後實

有早晚填盆 種之當及水泔土融時 播以鈴種 潛水深可半尺許 春初 類多額寒水深則 水冰霜着水 而凍不及傷 種乾則在土久 而發苗遲 可召春寒 苗生水中 雖眼明者 直視不能見 每於朝暾夕照 側腦斜視則 排牙水底 狀似金針 若於此時 洩水逢霜 枯矣 須慎防護 待成兩葉 天氣漸暖 又多終風 若水洩水則 苗爲波浪所撼 恨不着土 多浮在水面 須密天候洩水 曝日土面 漸苗根得定 乃上水 如此則苗老長 故秀不及侵 入土深 故旱不能夭 受質早故 風不能損曰何以早質 而耐風 農曰 凡穀 初發穗 實在萁甲爲水 待日煮 霜露滋 漸至堅牢 乃成爲 米東風轉燥萬物 且多起於穀種時 萃中之水遇風 而燥則損矣 早至堅牢風何爲災 曰耘當幾次 農曰 厥多 穀與莠不兩茂 莠之盛 穀之衰也 莠之衰 穀之盛也 安得不去之詳耶」(註)

(註) 姜希孟「杓陽雜錄」二四—二五枚(申沅「農家集成」)

그와 老農과의 問答를 자세히 읽으면, 老農은 어떤 箇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村落의 戶數百中 家畜을 所有하고 있는 者가 겨우 十餘戶만 있고, 그리고 그 家畜中牛는 一、二頭에 지나지 않는 僅少한 狀態라고. 이러한 記述를 보더라도 牛는, 極히 限定된 農民만이 所有하고 있었다는 것이 判明된다. 그리하여, 그대의 質問에 對하여 答한 老農이, 播種에 關하여 그것 이 疎한 所以를 『貧民惜穀播之甚疎』라고 말한 것과 이것을 比較 考察한다면 貧民의 資力의 程度가 더욱 더욱 分明하여질 것이다. 種子도 不足하였다. 況且, 役畜의 飼養은 考慮할 餘地가 없었는 것이다. 即

『然穀胎則 只可信乎 輕輕拔除 不宜入鋤 用鋤則 根傷而積穗 曰播種疎密 奚當 農曰 貧民 惜穀播之甚疎 以待穀苗自茂 土腹則 一粒所滋 多至三十餘莖 不幾於小費 而多取乎 如此者 得米少而不完以理言之 旁輩餘輩 受氣不全故也 着備穀種耳 播密爲當 曰既知如此 何不深耕 而播 早種而數耘 農慨然曰 非敢惡此 而不爲 勢不行也 里有百家 有頭畜者 幾十餘家 家有牛 不過一二頭 除其梓樹可任者 幾

數頭、百家之田、數牛耕之、尙不能擔、況日者群盜、殺牛將食、無灾有牛之里、月喪八九、存者無錢、債人撓犁、九人之力、不及一牛、吾安得深耕哉、秋禾甫稔、計其所入、不滿、催科未納、私債繼徵、家無斗粟、奄至似戰、仰給官倉、計畝受種、飢迫撓腸、敢望後利、田是石減升、斗減撮合、吾安得密播哉、縣近京都、使者、旁午館穀供頓、靡不由民、十九之家、七八在外、奚暇、治農畝哉、此、吾所以無暇於早種、而數耘也、由是、歲漸不登、民漸流亡、則曰民不可不恤也、朝發賑貸、戒勅州縣、舉行荒政、一舉而民益困、是惟撓其源、而求流之消也」(註)

(註) 姜希孟「杓陽雜錄」二五枚。

朴趾源도 그의 「農說」中에 있는 「蕢壤按說」一節에、朝鮮에는 牧畜이 아직 廣行되어 있지 않고、따라서 牛를 所有하지 않는 者가 十中二、三있으며、 「上農」이라 할지라도 家畜類의 所有는 極히 稀少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前의 姜希孟의 著作中의 記述에 比하여 極히 過少의 으로 본 論述이라는 誹謗을 免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計算에 依하면、二、三〇%를 除外한 나머지 七、八〇%의 農民은 牛를 所有하고 있는 것이 되며、姜氏의 質問에 對答한 老農의 計算에 比하여 너무나 差가 있다. 그러나 이 姜氏의 것은 그의 任地에 있어서의 計算이며、狹小한 一地域에 있어서의 것인에 反하여、朴氏의 것은 이 땅의 全體를 眼中에 둔 것의 그것이라는 것으로부터 後者의 便을 옹하는 議論이 나옴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條件으로부터 姜氏의 것을 相對的으로 正當하다고 볼 것이다.

『我國 牧養未廣 農民無牛者 十之二三 雖上農 鮮能飼大小六角 羊歲之屬 尤所絕罕』(註)

(註) 「蕢壤集」卷之四、農說、蕢壤按說、十五枚。

그러나 이 땅의 農業 生産 過程에 있어서는 耕牛가 支配的으로 要請되었으나、貧困으로 말미암아 耕牛의 使用을 斷念한 所謂 貧農은 鋤耕을 甘受하든지、其他의 方法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朝 封建 社會 機構에 있어서는 그의 存立의 必要에서 絶對로 『勸農政策』을 모든 國策의 第一位에 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官僚들은 이것에 뜻을 모두 傾注하였으며 封建治者階級の 第一線을 擔當한 牧民官인 觀察使, 守令이 꾸준히 反覆하여 敎示하고 있는 모든 新習에는, 모두, 『農桑盛』에 關聯시켜 說明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充分히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農牛・農器』에 關하여 우리들은 많은 資料를 列擧할 必要도 없이, 다음과 같은 敎種의 記錄을 읽음으로써 充分히 解得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이 땅에 있어서는 特徵的인 過小農的 農業 經濟가 너무나 貧困하기 때문에 自己의 耕牛를 飼養하는 것을 不可能으로 한 것이며, 사람이 輓獸의 代身을 하였던 것이다. 萬若 農民이 이러한 過程을 拒否하려 하면, 農民들은 다른 方法으로 自己 스스로가 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가장 穩當한 方途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는 저어도 다른 모든 政策과 같이 『農牛・農器』에 關하여도 亦是 觀念的으로 是 自發的 自己 救濟의 길은 完全히 斷絶되어 있었다. 여기에도 아세아의 官僚 專制 政策이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었다는 것이 看取될 것이다. 即 右와 같이 『農牛・農器』의 不足은 治者 階層에는 이미 所與된 現象으로서 反映되어 『農牛・農器』는 村落 農民의 『相爲資借』에 依하여 不足을 補充할 것을 規定하고, 이러한 貸借의 規定을 遵守하지 않는 者는 嚴罰에 處하라고 命令하고 있다. 이것은 『治郡要決』中の 一節에 充分히 나타나고 있다. 即

『且農牛・農器 亦令本里隣比, 相爲資借. 不資借者 治罪之意, 亦道道申飾知要. 此段, 宜參考 朱子勸農知委榜, 翻譯開論, 可也』(註)

(註) 「治郡要決」一四、要決四、勸農桑(「朝鮮民政資料」二〇面。)

그 後에 나타난 「先覺」이란 牧民書에도 右의 規定과 大略 같은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又云、勸農之政、尤當留念爲凶歲、今年農民賣食農牛、明年廢農可慮 或從長變通、或出損月廩、從市直買牛幾匹。分給各里著實民人等、使之喂養 與其洞里無牛者均一耕作、爲善政。耕作過夏後、賣牛買穀、以補飢民所食之官穀、則爲一施而再施之惠也。給牛時。必烙印牛角、以防換牛之弊可也』(註)

(註) 「先覺」二八、重農事、四八、(「朝鮮民政資料」一九六面。)

또 「先覺」의 뒤 에 나타난 洪良浩의 「牧民大方」에는、

『耕種之法、隨其土俗、作爲節目、頒示境內藝田、著種・耕種播之節、無失其時。每沼春耕之時 抄出無牛、無糧者 令隣里相助、違者重罰』(註1)

『牛者、農家之大用。境內農牛、牝牡毛角一一成籍、置官府、買賣死亡呈官立官、用十家牌法。使一牌之內、有無相資、排日分耕、本牌未畢耕前、毋得許借他里』(註2)

(註1) 「牧民大方」戶典之屬、三日勸耕種、二三。(「朝鮮民政資料」一六一面。)

(註2) 「同記」二四。(「同書」)

以上과 같이 貧困으로 因하여 藝田、蓄種、耕種의 時期에、그 各各의 工程을 實行 못하며、時季를 잃은者 있는 것을 念慮하고、春耕의 時季에 있어서는 貧困때문에 耕牛도、種子도 가지지 않는者는、村落 農民의 相互扶助에 依하여 그 缺을 補充할 것을 規定하고 이 規定에 따르지 않는者는、重罰에 處하라고 規定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본다. 그리고、村落 內의 農牛를 調査登錄시키며、그 所在을 分明히 하고、「十家牌法」이라는 自治團體法을 作成시켜 그의 自治團體에 所屬하는 農民으로 하여금 有無相資하게 하며、共同 耕作을 시키고 그의 自治團體 內의 耕作 過程이 終了된 後에 다른 村落의 援助를 위하여 出發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나라의 아세아의 封建社會의 治者 層이 如何히 農業 生産力의 維持를 爲하여 關心하였는가, 이러한 細密을 다한 規定을 通하여 看取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規定이 果然 如何한 範圍에 걸쳐, 얼마나한 期間에 걸쳐서 實行되었나 하는 것은 分明하지 않다. 우리들이 이러한 規定을 必要로 한 要因을 조금이라도 理解한다면, 그것으로 充分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 末期에 이르면, 事情은 스스로 變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以上 數種의 資料에 있어서와 같이 指導層으로부터의 敎示나 規定에 內包되어 있는 矛盾은, 現象에 明瞭하게 나타나서, 他力的보다도 自發的 對策을 講究시키는 것이 現實의 問題가 되었다. 歷史의 發展은 이와 같은 段階에까지 進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소(牛)를 적어도 一時的으로 利用하지 않고는 그네들의 進歩的 耕作은 全然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牛의 使用이 實際에 있어서 豐饒한 米作에 있어서 不可缺의 前提가 되고 있는 貧困한 農民들은 共同하여 牛를 飼養하든지, 極히 僅少한 資力을 가지고 있는 農民은 耕作을 爲하여 一匹의 소를 一時 賃借하든지, 어떠한 策을 取하지 않으며 안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韓國農業論」(註1) 「朝鮮之研究」(註2)에서 韓國 末의 賃借의 事情을 看取하고 「新選韓國事情」(註3)에서 共同 飼養의 事實을 엿 볼 수 있었다.

(註1) 「韓國農業論」一四五面、參照。

(註2) 「朝鮮之研究」一五三面、「韓國農業論」一四六面、參照。

(註3) 「新選韓國事情」二六〇面、參照。

貧困한 農民의 擴大와 富裕한 農民에로의 牛의 累増과는 스스로 또 耕牛를 飼養하고 오로지 賃借業으로 하는 者까지도 現出시키게 되었다. 卽

『村內에는 耕牛를 飼養하고 賃借를 事業으로 하는 者가 있다。』(註)

(註) 「韓國農業論」一四六面。

勿論、富裕한 農民이、自己의 牛에 依하여 成遂할 수 있는 다른 一切의 勞働—가령 水車라든지 水揚이라든지、精白의 廻轉等—은、牛를 가지지 않는 貧窮한 農民에 있어서는 自己의 勞働에 依하는 外 이 方法이 없었다。

우리가 只今까지 論究하여 온 役畜 保有에 對하여 妥當하였던 原則은、같은 方法으로 其他의 勞働 器具의 所有에 對하여서도 妥當하는 것이다。貧農과 比較的、富裕한 農民과의 物的 器具 相違는 明白히 存在하고 있었다。가령 穀物の 精白은 比較的 小農 經營에 있어서는 다만 맞추어 끼웁으로써 行하여 왔어나、富裕한 農民에 있어서는 大部分 回轉 精米器를 利用하는 것이었다。(註)

(註) 「新撰韓國事情」二五七面에서 實例를 들 수 있다。

水車에 依한 米揚의 使用도、貧窮한 農民과 富裕한 農民에 依하여 그 相違를 이룬 것은 勿論이다。貧農은 畜力、水力 代身을 自己의 勞動力에 求하였던 것이다。(註)

(註) 「新撰韓國事情」二五七面。

W. B. Charles, *Life in Corea*. London. P. 354. 參照。

Bishop의 그의 探查 旅行中、이 땅의 水車를 目擊하였으나、그의 描寫에는 水車의 未發達 狀態와 아울러 人力이 水力에 能히 代身할 수 있는 것을 報告하고 있다。即

“Pangas, or water pestles for huling rice, under rude thatched sheds, were numerous. These work automatically, and their solemn thud has a stone of mystery. The machine consists of a heavy log centered on a pivot, with a stream with some feet of fall is led into the log, which when full tips over its contents and bears down one end of the log, when the sudden rise, acting on the pestle at

the other end, brings it down with a heavy thud on the rice in the hollowed stone, which serves as a mortar. Where this simple machine does not exist the work is performed by w men”(註)

(註) L. B. Bishop, *ibid.*, P. 123.

一八八八年에 中 北朝鮮地帶를 細密히 調査한 W. R. Carles 의 Bishop과 類似한 報告를 우리들 앞에 남기고 있다. (註)

(註) W. R. Carles, *Life in Corea*. London. P. 236—258에 記述한 如하也。

“Mills for hulling rice, worked by water-power, were met with at frequent intervals. The principle was the same that I had seen the previous winter in Kang-won Do. A huge log rested on a pivot. To one end was fastened a wooden hammer weighted with stones, the other was hollowed into a great trough into to water poured when the trough was filled, the weight of water forced it down and up set the contents. Relieved of its weight, back flew the log, and with the recoil the hammer came down upon the grain”

農業 生産 過程에 있어서의 勞動中에서 如何한 部門이 가장 手勞動 經營을 唯一한 방법으로 삼고 있었는가, 그것은 極히 明瞭하다。即『龍酌』或은『桔槔』는『雨天에 물이 缺乏되었을 때溜地或은 河流 等으로부터 水田에 물을 보내는 데 使用하는 한 灌溉器』(註)다。생각컨대 가장 簡單한 唯一한 揚水器 即 灌溉 要具이었을 것이다。우리들은『農政撮要』中の『水利論』(註)에 있어서『桔槔』와 올려 踏水車 및『上水車』라는 揚水器를 보았으나, 이러한 揚水器가 實施되었나, 아니었나는 問題일 것이다. (註)

(註一) 『韓國農藥論』一四二面。

(註二) 『圖書』二三四面。

(註3) 「農政摘要」五四—五五面。

이 때에 있어서는 灌溉에 關한 政策이 일찍부터 治者 階級の 注意를 喚起시켜 勸農 政策의 肝要한 部門을 占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아는 바이지만 灌溉 要具에 關하여도, 前者와의 必然的 關係에 依하여 일찍기 爲政者의 關心하는 바이었다. 우리들은 아세아의 高麗 封建社會에 있어서 水車에 關한 敎書를 찾아 낼 수 있다.

『恭愍王 十一年 密直提學 白文寶 上劄子 江淮之民 爲農而不憂水旱者 水車之力也 吾東方人 治水田者 必引溝渰 不解水車之易注 故田下有渠會 不足尋文之深下瞰 而不敢激 是以汚萊之田 什常八九 宜命界首官 造水車 使效工取樣 可傳於民間 此備旱壅荒第一策也』(註)

(註) 「高麗史」七十九、志卷第三十三、食貨二、農桑。

高麗 恭愍王 十一年 密直提學 白文寶의 上劄子에는, 이 때의 農業 生産에 있어서 水車를 가지고 灌溉을 行한 必要性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率先 官衙에 있어서 灌溉에 便利한 要具 水車를 製造하여서 民間에 傳布하여, 灌溉策을 考究시킬 것을 勸하고 있다. 卽 當時 中國에 使用되어 있는 水車의 使用을 採用하려고 하였다. 萬若, 이러한 進步的 進言을 國王이 採用하였다 하면, 確實히 試驗的 效果만이라도 맛 보았을 것이다. 우리들은 右의 資料에 依하여 分明히 水車의 製造, 使用을 試驗한 事實을 推論할 수 있을 것이나, 萬若 事實 그렇다 하면, 『水車의 製造 使用을 試驗한 事實이야 말로 高麗 時代의 農業 技術史上 가장 重要한 事實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計劃案이 實施 普及되지 않은 곳에 不徹底한 것이 認識된다. 그러나, 農業 土木 技術이 比較的으로 發達한 朝鮮에 있어서 水車 製造의 停滯에는 다 理由가 있을 것이다』(註1) 이것은 確實히 우리들이 疑心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見解로부터 본다면, 當時의 農業 生産力

의 未發達일 것이다。水車의 使用이 合理的인 것을 察知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水車의 使用이 드라도 農民은 이더한 生産 過程을 持續시켜 갈 수 있었던 것이다。『李朝 時代에도 이 水車制를 取扱하였으나、爾後 發達하지 못하였다。』(註2)는 것이다。어찌하여 그러할까?

(註1) 洪以夏「朝鮮科學史」二〇六面。

(註2) 「同書」同點。

水車의 未發達은 農業 生産의 擔當者인 農民의 現實을 모르는 支配階層의 依한 觀念的 敎示이 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自然的、社會的 條件으로도부터 制約을 極度로 받는 直接 生産者 農民에는 水車와 같은 高度의 生産力의 段階에 있어서 비로소 需要되는 것은、大概 그로부터는遙遠한 일이었다。이러한 곳에 計劃의 案이 實施되지 않았던 不徹底性이 있다。農民은 그런 程度의 餘裕는 없었다。그 責任은 農民에는 決코 없는 것이다。

李朝에 있어서는 世宗朝에 있어서의 通信使 朴瑞生도 日本의 水車 使用을 論議하고、學生 金愼모 造車法을 論하고 있으나、그러나 모두 觀念論에 그쳤다는 것을 알 뿐이다。如何든 水車의 制가 李朝의 第四代 國王 世宗朝로부터 問題가 되어、第十七代 國王 孝宗朝에 이르러 더욱 國王을 비롯하여 封建 支配 階級の 注目을 끌었던 것은 事實이다。即

『上自內 召匠造水車一具 出付備局 下敎曰昔於燕濟之路 傍觀治水口之具 漑溉之用 莫如水車 而我國則全昧此制 咫尺雖有衰衰之流 地勢漸高 則立視其枯涸 而未知之河 良可難也 農者國之大本 而其器之不利又如此 深以爲憂 今令工匠 造出其制 兩堂審其便否 如其可用 卽傳布外方 以爲勸農之一助 回啓曰聖上當此旱乾 特軫民事 自禁中 造水車 制度甚巧 轉幹如狎 誠能家置戶設 則有益於備旱 必不淺淺 函令有司 依樣造十箇 分送八道 及開城江都 從之』(註)

(註)

「孝宗實錄」卷之四、庚寅元年五月。

「國朝實錄」卷之三十七、孝宗朝一、庚寅元年。

「大東紀年」卷三、七十二枚。

學部編「朝鮮歷代史略」卷之三、三十二丁。

이 땅의 農耕에는 自然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絶對的으로 灌溉의 必要가 있고, 그것에는 水車의 制를 반드시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 工匠에게 水車를 製造시키며, 全道에 널리 傳布하였으나 二 數는 僅僅 十具에 不過하였다. 이것은 完全히 試驗的으로 官이 그 模範을 農民層에게 보인 것과 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 말할 것 없이 이와 같은 小規模의 官의 模範에 依하여 이 땅의 農耕에 있어서의 灌溉 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不可能하였다. 그리고 農業 生産 過程의 現實의 모은 制約을 認識하고 있지 않는 封建 治者 階級の 이러한 試驗은 完全히 机上의 空論에 不過하였던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決코 農業 生産 過程을 左右하는 能力은 水車에 附與되어 있지 않았다. 即 水車 制度를 廟堂에 내리고 그 便利의 有無를 調査시키며, 그것을 土產도 하여 勸農의 一助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도 失敗에 몰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第二十一代國王 英祖 十六年の 敎書를 읽으면, 그 사이의 事情을 推論할 수 있을 것이다.

『作水車初 孝廟在藩館 見水車引水注畦 取其制以來 令戶曹製之 將以領下諸道 爲田農引水之具 而其遺制尙在戶曹 俞拓基之爲相也 白于 上 請依其制更造 至是車盛 戶曹判書 金始炯 言之 上曰此物可以過早引水乎 始炯曰今則水已凍 待春可試也 承旨 尹敬龍曰 肅廟時 亦嘗以其制 下嶺南而民不能繼造 遂至永廢矣 時議者以爲造車 工力多 而非鄉民所能 備仍置之不領』(註)

(註) 「英祖實錄」卷之五十二、庚申十六年、十一月。

「國朝寶鑑」卷之六十、英祖朝六、庚申十六年。

이에 依하여 지금까지의 試論이 確實히 그 試論인 限에 있어서는 水車가 灌溉에 極히 合理的인 것은 實證되어 더욱더욱 水車制를 採用하자는 欲望을 높였으나、具體적으로 水車를 製造 使用하는 段階에 이르면、成功하지 못하고、失敗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右의 資料에 있는 것과 같이、孝宗朝의 水車의 製造 方法等은 英祖朝에 이르러서는 遺制인 形骸를 남기고 있을 뿐、그 사이에 完全 絶斷되어 있었다는 것을 推測시키는 것이며、英祖朝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새로운 水車를 製造하여、全道에 頒布시키려고 한 것이 判明된다。그러나、이러한 水車 問題에 關하여서는 異論이 四面에서 일어났다。그 結果、드디어 農民層의 技術 程度로서는 官의 模範에 따라서 製造、使用은 不可能하다는 것이 되며、이것도 또한 孝宗朝의 轍을 밟게 되어 英祖의 意圖하는 바도 드디어 水泡에 물아가고 말았다。이것으로써 우리들은 治者 階層이 取扱한 水車 問題는 現實으로부터는 完全히 遊離된 觀念論이었던 것을 明白히 看取하는 同時에、農民層이 받는 自然的・社會的諸條件에 制約이 如何히 컸는가를 推測할 수가 있다。農民層은 原始 그대로의、自然과 싸워 가며、一層 強力하게 作用하는 社會 關係에 服從하였던 것이다。이와 같이 農民層이 무슨 餘裕가 있어、水車의 製造、使用을 그네들의 生涯 過程에 있어서 遂行할 수 있을 것인가。이러한 論議는 이로부터 續續 나타나며 水車의 使用이 灌溉에 있어서 如何히 合理的인가를 強調하고 있는 것이 資料에 보인다。例컨대 安順菴의 論議와 같은 것도 그의 하나다。

『安順菴云欲興水利 莫善於水利之制 莫善於泰西水法 其法簡而易行當令有巧識者 請求而行之 若水道低而田野高 則置車于水口量定 民戶便之運激』(註1)。

『牧民大方』의 著者 洪良浩의 『備軍乘』中에 있어서의 敎示도 그것이다。即

「車者、有國之大用。生民之利器、普天之下無不行用、而獨我東、拘於地形之不便、狃於習俗之未嫻、終不知造用、識者之慨恨久矣。戰車則、非列邑所可遽辦、而至於乘車、農車、水車、其利其博、其制甚便、必須講求而造成、漸次成俗、則富國強兵之術、從此權輿矣」(註2)

(註1) 「牧民心書」卷七、勸農、戶曹 第六條。

(註2) 「牧民大方」兵典之屬、十日 備車乘、七一。(「朝鮮民政資料」一七〇面。)

李峰光의 水車論도、「熱河日記」中에 있는 朴趾源의 論도 모두 同一하다. 그러나 「芝峰類說」의 著者 李峰光은、水車의 製造와 그리고 그것을 使用한 수 없는 理由를『我國人之性拙』에 求하고、「熱河日記」의 著者 朴趾源은『士大夫之過』라 하여、大端히 治者 階級을 責하고 있으나、根柢에는 其他의 모든 生産力의 未發達、게다가 生産 諸關係가、複雜한 形態로써 結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二者 모두 本質을 究明한 議論이라고는 한 수가 없다. 단지 民族性을 取扱한다는지、治者 階級에 責任을 轉嫁한 것은 아니다. 一層 眞은 實에 理由는 潛在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長久한 期間에 걸친 水車의 製造、使用에 關한 議論은、모두 一種의 觀念論에 그치며、現實에 있어서는 全面的으로 失敗에 물아가고、마침내 그의 存在의 자취조차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李朝 末期、特히 韓國에 있어서는 灌溉 過程에 있어서는『桔槔』라는 唯一한 揚水器에 依한 樞紐 粗朴한 方法만이(註1) 普及되어 있었다. 實際 水車와 같은 큰 灌溉 裝置는、더욱더욱 增大化하여 가는 貧窮한 農民에 있어서는 構築하기 어렵다는 것은 明白하다. 貧農은 이러한 裝置를 自己의 資力으로써 만들어 낼 수는 到底히 없었다. 如何히 宜이 그의 建設을 慫慂하여도 그 難하였다. 農民層은 自己의 能力에 相應하는『桔槔』및 그것에 類似한 取水 裝置로써 充分히 滿足하였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幼稚한 手桶 即『桔槔』로서 灌溉를 하지 않으면 안될 理

由는 勿論 단지 貧困의 證左만은 아니다. 所與된 環境에 있어서는, 그것은 도리어 合理的이라고도 볼 수 있는 勞働用 器具며, 灌溉될 土地의 面積이 너무나 倏小한 것도, 또한 이러한 理由에 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이 땅의 農業은 우선 그 農業 過程에 있어서 自然으로부터 받는 制約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小經營 形態가 支配的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第三으로는 이와 같은 小經營의 農業經營에 나타나는 廣汎한 農民層의 貧困으로 말미암아, 以上과 같이 長期間에 걸쳐 原始的인 不完全한 農業 勞働 器具에도 용아 넣던 것이라고, 우리들은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註一) 韓國 末期에 이르는 階段한 W. E. Giers는 水車에 依한 灌溉 狀態를 目擊하고 右와 같이 報告하고 있다.

"Instead of the water-wheel commonly used in China for raising water from one level to another in order to flood paddy fields, a much more simple contrivance was used. This consisted simply of a tripod, from which swung a great scoop with a long-handle. The man at work plunged the water as nearly as possible at right angles. The flow carried the scoop through the water a depression of the handle, accompanied by a slight jerk, threw the water into field above. After which the recoil brought the scoop again into position" (註二)

(註二) W. E. Giers, Life in Corea. London. 1888. P. 96.
H. Rudolf Zabel, Meine Hochzeitsreise durch Korea. Altenburg. 1906. SS 284-286 에 水車에 關한 報告가 있다.